

기초학문 육성의 필요성

강 치 원 | 강원대 사학과 교수

I. 한일 월드컵 축구가 가르쳐 준 교훈

최근 기초학문의 육성을 위해서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 축구와 히딩크가 우리의 기초학문을 위해 가르쳐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다. 알파한 기술보다 기초 체력이나 기본기, 개인기보다 시스템이나 팀워크, 연고주의보다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 기본을 통한 토탈사커 등이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그동안 우리 축구는 기초체력이나 기본기를 무시하고 현란한 기술만을 중시해 왔다. 우리의 학문 정책 역시 응용학문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느라 기초학문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과 교육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대부분 교육 논의의 귀결은 오히려 서울대 집종의 강화로 흐르고 있다. 마치 우리 축구 발전의 근본 문제가 연고주의의 철폐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지적해 왔지만, 도저히 그 병폐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축구팀 안에서 선배와 후배가 함께 식사를 하고, 공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축구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았다. 마찬가지로 교육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토론 문화의 활성화라고 본다. 우리의 학문과 교육 문제의 본질은 연구와 교수와 학습과 평가가 분리되어 있다는 데에 있으며, 매개 고리가 토론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매개 고리는 바로 토론식 연구, 토론식 교육, 토론식 학습, 토론식 평가를 말한다.

히딩크가 가르쳐 준 축구 경기의 또 하나의 교훈은 토탈사커의 중요성이다. 학문으로 말하자면, 학문 사이의 소통, 즉 학계간 연구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부제나 통합학문은 진정한 토탈사커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토탈사커는 자신의 기본 포지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동네 축구가 되어버린다. 우리의 학부제와 통합학문이 그 꼴이라고 본다. 학부제와 통합학문보다는 복수전공제와 부전공제의 실질적 효과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축구가 한일 월드컵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개인기보다 시스템이나 팀워크를 강조한 데에 있다. 우리 학문 정책 역시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 우리 학문과 교육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라는 학벌 체제, 법대와 의과대학에 몰리는 학문 서열화 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II. 모든 학문의 기초는 인문학이고, 나아가서 교육이다

학문은 크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을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으로 분류한다면, 정신과학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물질과학에는 자연과학과 공학이 속한다. 정신과학 안에서 인문학은 기초학문이고, 사회과학은 응용학문이다. 또 물질과학의 기초학문은 자연과학이고, 응용학문은 공학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정신과학은 물질과학의 기초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과학인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물질과학인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기초학문이 된다. 물론 사회과학 안에 기초적 사회과학(예컨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이 있고 응용적 사회과학(법학, 교육학 등)이 있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혹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초학문은 보편 원리를, 응용학문은 실제 결과를 추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측구에 비교하자면 현란한 기술에 앞서 기초체력이나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토대는 응용학문에 앞서 기초학문에 있다 하겠다. 줄여서 말하면 모든 학문의 기초는 인문학이다. 또 모든 학문의 기초는 교육이다. 다시 말해 모든 학문과 교육의 기초는 인문교육에 있다는 뜻이다. 인문학이나 교육의 토대가 바로서지 못하고서는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겠다.

III. 우리의 역사적 조건과 신자유주의

인문학과 교육은 바로 기초적, 보편 원리적이기에 응용학문에 비해 민주성과 공공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민

주성과 공공성이라는 말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 학문과 교육에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강제로 적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거칠게 말하면 시장의 효율성, 경쟁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를 위해서 노동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시장에게는 규제 완화이지만, 노동이나 교육에는 규제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적 조건은 그동안 개발 독재가 낳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과 독재는 공공성의 취약과 민주성의 취약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개발 독재의 독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자유주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게 독재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공공성에 대한 억압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독재, 즉 시장의 전횡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20대 80의 조건을 낳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나 공공성의 토대가 있었던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말이다. 우리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기 이전의 상황이 10대 90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로 인해 우리는 5대 95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아니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학문과 교육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기초학문 육성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신자유주의를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는 4차의 연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시장 확대를 통한 이윤 증대를 피하고 있는 자본, 둘째, 말로는 규제 완화라고 하지만 시장에게만 규제 완화이지 실질적으로 노동에게는 규제 강화를 떠 안기고 있는 국가, 셋째, 국가 간의 국제교류보다는 초국적 세계화를 통해 일극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 넷째, 민주성

이나 공공성은 무시하고서 시장의 창조성을 위해 매달리고 있는 기술공학주의를 말한다.

우리의 기초학문 육성을 염려한다면 신자유주의적 자본, 신보수적 국가와 초국가적 미국과 기술공학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Ⅳ. 학문과 교육의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자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축구에서 개인기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듯이 우리 학문과 교육의 시스템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 체제가 우리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는 다른 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서울대의 집중 지원을 통한 학문 발전은 곧 개인기를 육성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모든 대학들뿐만 아니라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참다운 민주적 경쟁(민주적 경쟁은 시장 경쟁과는 다른 뜻이다)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서울대가 다른 대학과 민주적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독점은 참다운 민주적 경쟁이 아니다.

학벌체제와 학문의 서열화가 우리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서울대를 옹호하고자 하는 교수들은 요즘 서울대의 기초과학이 위기에 있다고들 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이과 고등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들에 원서를 내고 나서, 즉 의과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서울대 기초과학의 학과에 진학한다는 것이다.

학문간의 시스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말한다. 다른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시스템과 독일 시스템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 시스템은 법조인, 의사, 교사 등을 양성하는 법학이나 의학, 교육학의 전공이 대학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전공하자면 우선 학부과정에서 다른 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는 방식이다. 소위 법학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의사나 교사의 양성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교원이 되고자 하면 학부과정에서 보통의 학문들을 공부하고 나서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교사의 길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법학이나 의학, 교육학은 응용학문의 측면이 있다. 이같은 미국 시스템은 우리의 경우에 비해서 기초학문이 발전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원이라는 교육 기간의 연장을 통한 교육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이 있다. 대학원을 가지 않고도 법조인이나 교사 등이 양성될 수 있다면 교육기간은 더욱 짧지 않겠는가? 특히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 체제 속에서 교육 기간의 문제는 인재 양성의 공공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일의 시스템은 대학원 조직이 없다. 모든 대학생은 2개의 복수전공 방식으로 졸업을 하거나 1개의 주전공과 2개의 부전공 방식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예컨대 역사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학과 역사학을 전공해서 졸업해야 한다.

이 방식은 앞에서 말한 대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기간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대로 독일은 대학과정(독일은 대학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받는다)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까지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부담한다는 말은 세금을 통해 교육비를 마련한다는 뜻이고, 세금이라 함은 누진세와 직접세가 중심이라는 뜻이다(우리 경우는 누진율이 낮을 뿐만이 아니라 재산세나 소

득세 같은 직접세보다 상대적으로 담배소비세와 같은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 하루에 재벌 회장도 담배 한 갑을 태우고, 노동자도 담배 한 갑을 태운다고 가정했을 때 재벌 회장이게서나 노동자에게서 비슷한 비중의 세금을 거두겠다는 시스템이다. 우리 학문과 교육 발전의 근본 시스템의 개혁은 조세 개혁을 통한 공공성의 확보에 있다고 본다.

V. 학문과 교육에서 의사소통의 토론 문화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학문과 교육 문제의 근본은 학문 연구와 교육과 학습과 평가가 분리된 데에 있다. 법대생이 아니, 서울대 법대생조차도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 강의는 대충 들어도 되고 신림동 고시원에서 일반인—물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다 잘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이 가르치는 죽집계 강의를 들어야 한단다. 교사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도 그렇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전교 1, 2등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그렇다고 한다—학 교에 와서 잠을 잔단다. 사설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열심히 받느라 잠을 못 잤기 때문이란단다.

교육은 가르친 사람이 평가할 수 있을 때 죽지 않고 산다. 즉, 교육과 평가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분리되어 있는 학문과 교육과 학습과 평가를 연계할 수 있는 매개 고리는 토론이다. 토론식 연구는 콜로кви움의 활성화를 말한다. 토론식 교육

은 세미나의 활성화를 말한다. 세미나의 원래의 뜻은 교수 지도 하의 대학생 공동 연구이다. 독일 대학의 강좌는 강의와 세미나로 구분되는데, 강의는 그냥 듣는 것이고 학점 이수는 세미나로 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강좌가 일방적인 강의식보다는 대 학생의 참여식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로 평가 방식의 개혁이 중요하다. 우리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5지선다형 고르기이다. 고르기가 아니고 논술형인 경우에는 진정한 토론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VI. 학문은 정보이지만, 교육은 문화이다

응용학문은 정보와 내용의 문제이지만, 기초학문은 문화와 방식의 문제이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응용학문은 콘텐츠(콘텐츠웨어)가 중요하다면, 기초학문이나 교육은 소프트웨어와 문화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연구 방식, 교육 방식, 학습 방식, 평가 방식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학문이나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

강치원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육위원장, 교육개혁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참여연대 운영위원, 교육연대 운영위원, 시민의 신문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마르셀리우스 정치사상의 중세성과 근대성」, 「한국사회의 쟁점과 토론」 등이 있다.